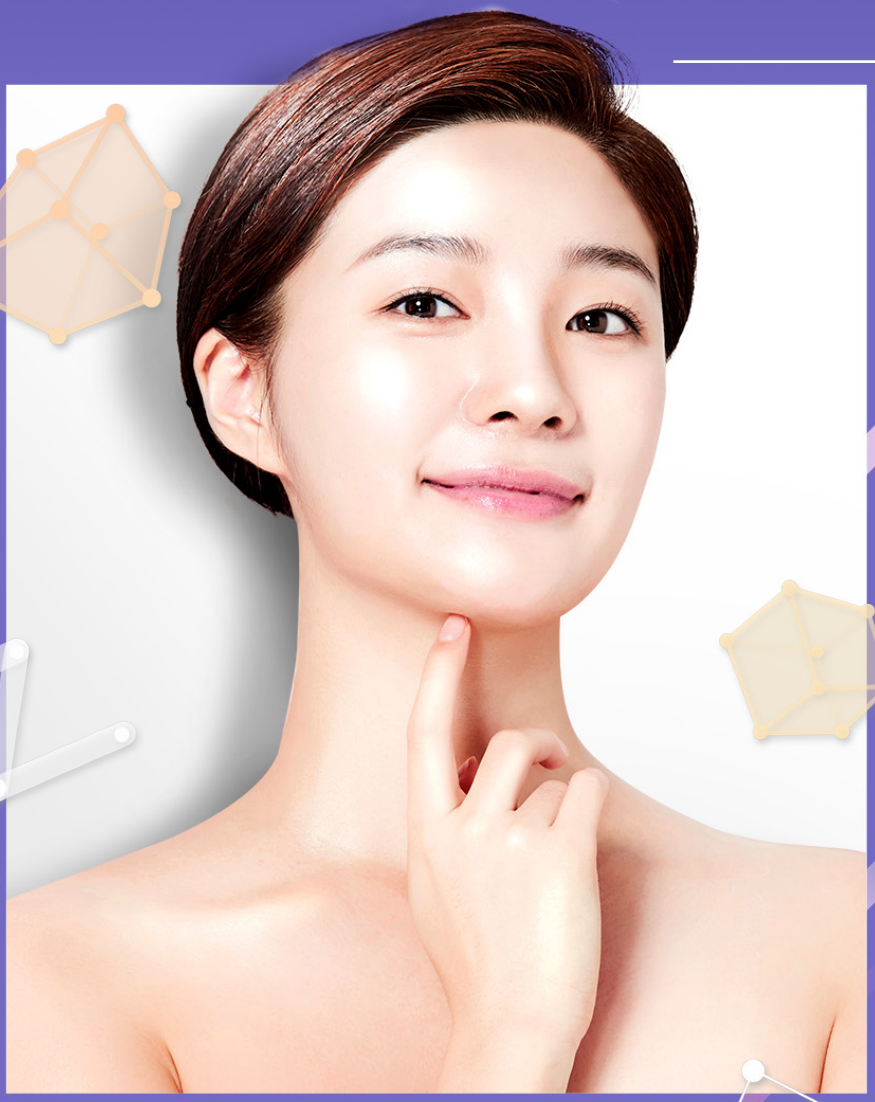
진료현장 담은 스킨 트렌드 2022



헬시 플레저를 응원하며

감수 : 압구정 차앤박피부과 박진성 대표 원장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도 나오는 흔한 정보를 넘어 진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스킨 트렌드를 전망해 본다.

예측의 기준은 두 가지로 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그리고 한국이라는 주변 환경을 고려했다. 또한 차앤박피부과 진료 현장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2022 키워드 : 팬더믹, 리프팅, 지속 가능

안타깝게도 팬더믹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류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증가하면서 질환 유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꼼꼼한 피부 관리법이 필요한데 나아가 마스크 경계면의 기미까지도 살피는 단계에 이르렀다.

두번째로 리프팅 시술의 인기가 만개한다는 것. 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예방을 위한 얼리 케어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만큼 리프팅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웨딩 전 케어로 리프팅은 기본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활력 넘치는 노년에 대한 기대감 및 준비가 한창이다.

세번째는 지속 가능한 피부 건강 관리다. 피부과 치료의 분야에서 질환별을 넘어 얼굴 부위별 치료도 선호하는 추세다. 개인의 피부 타입, 고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치료를 찾게 되며 스마트해진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피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건강을 추구하는 현 세대들이 가져 온 나비효과라 말할 수 있다.

홈케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 선택적으로 취해야

집콕의 생활화로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남성들의 화장품 소비도 가파른 증가세다. 외출은 하지 않아도 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구매력 상승에 영향을 준 것.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보는 취하되 내 피부 건강에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만의 피부주치의는 필수다. 호미로 가릴 것 가래로 가린다는 말처럼 피부 질환 발생시 바로 피부과에 가서 치료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왕이면 즐겁게, 헬시 플레저인 우리를 셀프 응원하며

치료는 기본이고 이제는 건강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스킨 트렌드의 한 방향이다. 안티에이징의 범주 안에서도 굵은 주름이 자리잡거나 페이스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방문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 방문하고, 개선 후에는 지연 또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번 치료할 때 무리해서 하기 보다는 피부주치의가 개개인에 맞춰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방한 것에 따라 진행한다. 환자들은 통증이 있기 보다는 덜한 것, 붉은 기가 오래 남고 회복시간이 길어지는 치료보다는 티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을 선호한다.

이왕이면 즐겁게 피부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얼리 케어가 바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헬시 플레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22년 임인년(**壬寅年**) 범띠 해를 이끌 10대 트렌드로 제시한 말 가운데 하나로, '건강(HEALTH)관리가 즐거워진다(PLEASURE)'는 의미이다. 즉,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것으로, 과거에는 쾌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의 건강관리가 주였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에도 즐거움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 역시 '치료'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는 추세다.

출처 「트렌드코리아2022, 미래의 창」